

1920~1930년대 조선문학과 상해

- 조선 근대문학자의 중국관과 근대 인식을 중심으로 -

김호웅*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근대 조선의 문화인들이 본 상해
 3. 1920~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상해
 4. 결론
- 참고문헌

【국문초록】

1919년 3.1운동을 전후로 하여 근대 조선의 많은 문학자들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근대도시 상해에 와서 체험을 쌓았고 상해지역의 중국인을 비롯한 여러 인종과 그들의 각양각색의 생활을 다룬 실기류와 시, 소설 작품을 창작해 국내에 발표했다. 하지만 그들의 체험은 언어적 장애, 중국의 최고 지성들과의 교류와 대화의 불가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외관적인 관찰에 치우치고 있으며 주로 상해 하층민과 상해에 체류한 조선인들의 생활에 머물고 있다.

주로 실기류와 소설을 살펴보면, 조선의 근대 문학자들은 조선 국내에서 일제의 폭력과 문화적인 헤게모니(Hegemony)에 의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 받은 상황에서 이국 상해에서의 체험을 통해 조국의 식민지현실을 성찰, 반성, 비판,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이역 상해— 즉 타자(The other)를 자기 조국의 현실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삼았으며 그 과정에서 유토피아적 형상과 이데올로기적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그들 조국의 낙후된 현실을 부정하고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거나 조국의 식민지상황을 재확인했다.

*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어학부 교수

그러나 일부 문학자들은 상해의 식민성을 보지 못하고 그 외관적인 모습에 현혹된 나머지 상해를 식민지 조선이 따라 배워야 할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심리 속에 깊이 잠재된 이중적 신분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문화적 우위”에 서서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으로 중국 국민의 개회되지 못한 모습을 극대화해 그림으로써 조선 국내 독자들의 호기심에 만족을 주고 부지불식간에 일본의 해계모니 담론에 동조하고 있다. 또한 일부 근대문학자들은 근대성의 음영과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사회, 전근대적인 도덕과 윤리를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혁명을 제시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혁명을 제시하는 경우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경중환급을 따지지 않고 있으며 “단절 속의 반복”의 폐단, 즉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과 인위적인 단절 뒤에 빚어질 수 있는 새로운 “제국”의 출현에 대해서는 경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배경으로 한 상술한 작품들은 해당 시기 한국 본토의 문학으로는 완수할 수 없는 과제, 즉 조선의 근대화에 대한 성찰을 진행할 수 있었고 해당 시기의 문학에 이채를 더해줄 수 있었다.

주제어 상해, 근대성, 식민성, 유토피아적 형상, 이데올로기적 형상, 오리엔탈리즘적 시각

1. 들어가는 말

1842년 6월 11일 저녁, 영국 군함 나미지스호가 가만히 양자강하구에 다가와 상해와 12해리 떨어진 吳淞砲臺 부근의 바다에 정박해 상해를 향해 포격을 개시했다. 며칠 후 상해는 영국군의 위협과 폭격을 이기지 못해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년 11월 영국정부에서 파견한 제1임 상해영사관 조지 바터(George Baltour) 상위는 배를 타고 상해에 들어왔다. 그는 상해의 현지 관리들의 도움 밑에 상해 주민들이 아예 거들떠보지 않고 내버려왔던 갯벌을 발견하게 된다. 바터 상위는 “군인”일뿐만 아니라 “이해타산에 밝은 상인”인지라 이

무연한 갯벌에다 근동을 지배할 수 있는 영국의 발판을 만들려고 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대리 영사 헨리 후크도 이 가없이 펼쳐진 갯벌에 눈독을 들이게 되었으니 이리하여 여기에 조계가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1842년 8월의 『중영남경조약』을 거쳐 상해는 구미 열강과의 무역을 위한 개항장이 되었고 상공업도시로 급속히 발전하여 중국 제1의 도시로, 나아가 아세아에서도 가장 큰 도시로 된다. 1854년 영국, 프랑스, 미국은 서로 결탁해 『토지장정』을 제정하고 工部房과 巡捕房을 설립하는데 이로써 상해의 조계는 그야말로 大清國의 國中之國으로 되었다.¹⁾

20세기 초반에 와서 상해는 발전을 거듭해 중국의 경제·무역·금융·문화의 중심으로 되며 “자유의 땅”으로, “모험가의 낙원”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 하여 상해는 인종전시장이라 할 만큼 세계 각국의 탐험가, 실업가, 정치가, 문화인, 실직자들이 몰려들어왔다. 20세기 초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조선의 정치인들과 문학인들도 상해를 동경하였으며 이 곳을 東山再起의 발판으로 삼게 되었다.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을 전후로 더욱 많은 정치인들과 문학인들, 그리고 유학생들이 상해에 들어왔다.

이 시기 상해 지역에 들어와 활동한 대표적인 문학인들로는 김택영, 신정, 신채호, 이광수, 주요섭, 최상덕, 김광주, 심훈, 피천득 등을 들 수 있겠고 취재, 여행 등으로 상해에 왔다가 글을 남긴 문학인들까지 헤아리면 무려 수십 명에 이른다. 이들은 신문기사 수기, 수필, 시, 산문, 소설 등 장르를 통해 상해의 세태와 인정, 상해바닥에 들어온 조선인들의 다양한 삶과 표정을 리얼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1910년 국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근대를 지향한 조선으로 놓고 말할 때 “과정이 없는 결과”로 주어진 식민지 상해

1) 辛向陽 等 著, 『人文中國-中國南北情貌與人文精神』上冊, 中國社會出版社, 1996年, 124면.

의 근대적 문명과 그 명암은 조선의 문인들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흑자는 상해를 통해 근대도시의 모델을 찾으려고 했고 흑자는 외면적인 근대 문명에 가려진 상해의 식민성과 그 암흑상을 개탄했다.

이 글에서는 주로 형상학적인 방법과 비교문학적 방법으로 1920~1930년대 상해를 배경으로 하는 신문기사, 수기, 기행, 수필 등 실기류와 소설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근대문학자들의 상해관 또는 中國觀과 그들의 근대성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해외에 나간 작가를 비롯한 문화인들은 이국의 풍토와 인정, 현실을 주로 세 개의 시점으로 접근한다. 하나는 이국과 모국의 차이, 이국의 근대적 발전상을 확인하고 이국을 유토피아적 형상으로 다루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국과 모국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모국의 식민지 현실을 재확인하는 이데올로기적 형상을 창조하는 경우이다.²⁾ 이외에도 이국의 현실이 갖고 있는 명암을 포착하고 보다 바람직한 근대를 지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와 반면에 여러 가지 왜곡과 오독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문인들의 중국관과 근대성에 대한 인식을 직설적으로 표출한 실기류의 작품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상해를 다룬 소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근대 조선의 문화인들이 본 상해

상해에 상주하는 한국인은 1925년에 795명, 1930년에 937명 1935년에 1723명이었는데 그 대부분이 법조계에 살았다.³⁾ 그들 중 주로 유학생, 기

2) 孟華 主篇,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年 7月.

崔一, 『韓國現代文學中的中國形象研究』, 延邊大學博士學位請求論文, 2002年.

3) 孫科志, 『上海韓人社會史』, 한국 도서출판 hanul, 2001년, 27면.

자, 특파원 등이 한국 국내 신문과 잡지에 상해에 관한 실기류의 작품들을 투고했다. 이러한 작품들은 이국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과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한국 국내 잡지에서 다투어 실렸다. 손지봉의 통계에 의하면 1920년대~1930년대까지 수필 18편, 기행 6편, 신문기사 32편으로 총 56편이 실렸는데 그 중 상해 특파원으로 활약을 했던 姜露鄉의 글이 6편으로 제일 많다.⁴⁾

1) 근대 문명의 모델 : 상해에 대한 찬미

20세기에 들어와 상해는 상업과 공업이 발전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했다. 구미 여러 나라의 인종들이 들어와 살았고 통신과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었으며 고층 빌딩, 항구, 공장 등이 일어섰고 금융시장도 세계적이었다. 1913년 상해에서 이루어진 무역액은 4억 2천 1백 32만냥으로 전 중국 무역액의 40%나 되었다. 이러한 상해에 온 한국 문화인들은 상해가 이룩한 근대적 문명에 경도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신문기사, 수기, 기행, 수필 등 형식의 글을 통해 상해의 근대적 문명을 확인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上海는支那文化의中心으로볼수있다.上海는支那와歐洲·米國·濠洲·印度等の諸大陸諸地方을結付한中心地로交通機關은單히物質뿐만안니라知識感情思想及政治的影響文化的勢力等を運搬하는重要處이었다.⁵⁾

上海寓客이라 칭한 이의 글인데 상해를 세계와 통하는 관문으로, 중국의

4) 孫志鳳, 「1920~30年代 한국문학에 나타난 상해의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년 석사학위 청구논문, 14면 참조.

5) 上海寓客, 「上海의 解剖」, 『開闢』, 1920.8, 108면.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 보고 있다. 신언준은 “東洋의 國際的 大都市 上海는 全世界 乃至 世界の 한 神經中樞”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 등 13개 대통신사가 들어왔다고 전한다. 그는 풍족한 월급과 수당을 받는 외국기자들을 부러워하면서 “朝鮮新聞의 報道가 自國의 아무 必要와 影響이 없다는 見地에서 朝鮮新聞記者의 地位를 認定치 않는 것은 숨길 수 없는 事實”이며 “이런 關係로 뉴스 採集에든지 社交上에서든지 至大한 困難이 있다.”고 원망하기도 한다.⁶⁾

滬上夢人, [이광수의 필명]은 상해의 국제적 성격에 더욱 매료되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上海는 世界の 縮圖라고 보아만 하나이다. 人種 치고 아니 와 사는이 업으며 物貨 치고 아니 와 노는이 업고 第一奇觀인 것은 十數個國 通貨가 다 通用됨으로소이다. 그러나 그 中에서 가장 勢力있는이는 英人이니 그네의 租界는 3租界 한 북판 形勝한 位置를 占하여 그 가장 繁華함이 마치 英帝國의 繁華함이 世界에 웃뎀됨과 갓사오며 또 英語는 全市 各色人種의 通用語라 洞名이며 모든것은 自國語로 쓰는 法人도 必須한 用文이나 告示는 모두 英文으로 하나이다.⁷⁾

세계의 여러 인종이 더불어 살고 수십 개 나라의 화폐가 자유롭게 통용되는 상해, 거기다가 “영제국의 변화함”에 겨룰 수 있고 세계의 공용어인 영어로만 통할 수 있는 상해가 조선의 문화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별유천지요, 충격 그 자체였다. 한국 근대의 문화인들은 상해를 통해 비로소 근대 문명에 눈을 뜨고 모국의 낙후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상해는 정치적 자유의 도시로 한국 근대문화인들에게는 커다란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或은 自由를 愛하는 上世界 各處의 人人이 自由로 出入하는 巢窟

6) 申彦俊, 「특파기자생활잡기」, 『신동아』, 1934년 5월호, 120면.

7) 滬上居人, 「上海印象記」, 『新人文學』, 1935.4, 120면.

이 되었었다. 그리하여 其等 人人의 中에는 各自의 本國에對하여 政治的 不滿을 抱하고 來한 者가 多하며 從하여 其處는 種種의 陰謀를 企하는 自由의 都市로” 되었다고 보고 있다.⁸⁾

더욱이 상해를 찾은 조선의 문화인들은 상무인서관을 돌아보고 경탄을 금치 못한다.

우리가 支那人의 自覺과 努力의 程度를 알고저 할진대 商務印書館이라는 雄壯한 冊肆를 방문할 것이로다. 그 施設의 完備함이 참 놀나오며 그 內容을 보건댄 外國書籍이 具備하고 豊足함은 그네의 新知識慾의 熾盛함을 불지오. 各階級에 대한 月刊雜誌와 兒童雜誌며 各色教育標本類와 中小學校 教科書가 內容을 姑畲하고 外形만 그 만큼 整備하기도 國民教育의 普及과 學問獨立에 對한 그네의 열정을 엿볼지로 소이다. …

商務印書館에서 또 놀란 것은 翻譯과 辭典의 事業이라 대개 었던 文明의 初期는 外國書籍의 翻譯과 辭典의 編纂으로 비롯하나니 현금 支那에 이것이 必要함은 물론이로소이다. 書架를 죽 둘러 보건댄 初等 高等 諸般 科學書類와 哲學 文學 思潮에 關한 書籍이 거의 數十百種이나 支那文으로 翻譯되었사오며 辭典類 거의 完備하리 만큼 編纂되었더이다. 西洋人의 손을 빌어 겨오 韓英字典 한 卷을 가지고 全世界가 들떠드는 托스토이 오이켄 베룩손이며 飛行機 無線電信에 關한 四五百 글도 못가진 朝鮮人 된 나는 남모르게 찬 땀을 흘니었나이다.⁹⁾

상해의 출판, 교육, 문화의 발전상을 본 조선 문화인들은 커다란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상해를 하나의 근대문명의 모델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상해우객은 상해의 여러 인종들이 장차 “세계에 範을 示하는 大抱負”를 가지고 “友和적 精神과 協調적 行動으로” “東洋文化의 範을 左右할 自由港”을 이룩하기를 바라고 있다.¹⁰⁾ 이러한 견해들은 상해의 식민지현실을 액면

8) 上海寓客, 「上海의 解剖」, 『開闢』, 1920.8, 107면.

9) 滬上夢人, 「上海서, 第二信」, 『青春第四號』, 78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해를 식민지 조선의 모델로 인정한 대표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다.

2) 근대문명의 음영 : 상해에 대한 회의와 절망

그러나 조선의 근대 문화인들이 좀 더 상해의 구석구석을 살필 때 그 기괴함에 당혹감을 느낀다. 하나는 근대문명의 음영에 대한 놀라움이고, 다른 하나는 근대적인 문물과 봉건적인 관습의 뒤섞임에서 느끼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우월감이다.

“벌꽃”이라는 필명의 작자는 “人力車, 거지, 갈보 이 세가지는 支那 아모 都會나 없는 곳이 없겠”지만 상해는 “그 우에 賭博, 阿片, 盜賊”이 득실거린다¹¹⁾고 한탄을 했고 滬上居人은 상해를 “惡魔의 都會”로 규정하면서 여기에는 “人質團 共産党 海賊 土匪 暗殺團 誘拐團 阿片密輸入者 武器密輸入者 惡德政治家”가 들끓고 있다¹²⁾고 개탄했다. 김광주는 동양의 빠리로 일컬어지는 상해의 대표적인 환락가 霞飛路를 “人類의 道德도 良心도 理智도 芸術도 文學도 詩도 없는 악마의 도시”로 규정했다.

상해를 찾은 조선의 문화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빈부의 격차 및 이로 말미암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주목하고 있다.

一九二八年부터 一九二九年十二月末까지一年과五個月間에上海에서는三百七十八件의 勞動爭議가니러났다.

그리하여 激烈한 呼吸器病患者의 紡織工 식킴한 肺臟의所有者인 鐵工 담과 몬지의 내음새의 고기덩어리인 쿠리 營養不良과睡眠不足의 商店員 磷毒의 廢疾者 석냥工等無智와 窮乏과 自暴自棄의失業群은 구구한生을 爲하여 最

10) 上海寓客, 「上海의 解剖」, 『開闢』, 1920.8, 106면.

11) 벌꽃, 「장강어구에서」, 『창조』, 1920.3, 375면.

12) 滬上居人, 「上海夜話」, 『別乾坤』, 1930.7, 95면.

後의 戰線에 나서는 것이다.¹³⁾

상해의 풍물시—근대문명과 봉건적인 관습의 뒤섞임에 대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이들이 거의 같은 시각으로 본 것 같다. 1921년 상해를 찾은 일본의 작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1892~1927)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廟 앞에 가서 여러 가지 노점을 돌아보면 거기에는 신발, 양말, 장난감, 사탕수수, 문방구, 수건, 땅콩, 그 외에도 지저분한 먹거리들이 널려있다. 일본의 ‘緣日’과 같이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산뜻한 양복에 수정 빈을 꼴은 중국인 신사가 있는가 하면 가는 은테를 두른 족두리에 종발을 한 구식 아낙도 보였다. ‘금병매’에 나오는 陳敬濟, ‘品花寶鑑’에 나오는 奚十一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는 더러 호걸남아들도 있는 것 같았다.”¹⁴⁾ 滬上夢人도 거의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상해의 인정과 세태를 묘사하고 있다.

상해는 또한 畸形적 支那의 縮圖로소이다. 한편에 조린 발이 뒹뒹둑 閨門內에서 男子의 奴隸노릇을하는 女子가 잇거늘 單편에는 短髮男服하고 女子參政權을 叫号하는 最新式 女權論者가 辯舌로 文筆로 女子의 覺醒을 喚起하나다. 한편에는 巴里 學士院의 會員과 伯林大學教授가튼 最新式學者 名士와 社會主義 無政府主義가튼 最新思潮에 口角에 거품을 날리는 靑年이 잇스며 單편에는 拱手危座하야 堯舜의 道를 講하고 孔孟의 禮를 說하는 旧套腐儒가 잇나이다.¹⁵⁾

보다시피 조선의 문학자들은 중국을 비하하고 중국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支那”, “支那文”, “苦力” 라는 말¹⁶⁾을 그대로 쓰고 있다. 그리고 상해

13) 滬上居人, 「上海夜話」, 『朝鮮之光』, 1930.10, 96면.

14) 芥川龍之介, 「上海遊記」, 『夜上海』, 經濟日報出版社, 2003年, 310면.

15) 滬上夢人, 「上海서, 第二信」, 『靑春』, 第4號, 77면.

에 대한 상술한 묘사에는 다분히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이 엿보이며 야유와 풍자가 깃들여 있다. 조선문화의 우위를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름지기 “제국의 담론”에 동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광주도 수필 「黃浦江畔에 서서」에서 상해를 “동양의 바리”, “동양의 문데 카로”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상해야말로 “자연을 등지고 사는 ‘로봇’들의 싸움터, 자연을 등진 도시”요, “양키들이 狂亂하는 거리”인 동시에 “房 속의 더위를 避하여 거리 兩 옆으로 나와 앉은 貧民 떼들”의 “코를 찌르는 내음새”가 진동하는 거리임을 고발한다. 따라서 그는 현대문명에 물들지 않은 “雅淡하고 清新”하며 “실로 짜놓은 것 같은 아기자기한 朝鮮의 自然을 사무치게 그린다.¹⁷⁾ 상해의 근대성을 부정하고 비판한 후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전통사회로의 回歸였던 것이다.

3) 상해의 식민성에 대한 비판

상해에 도착한 조선인들은 주객이 전도된 상해의 식민지현실에 놀란다. 滬上夢人은 기선이 황포탄부두에 닿자 여러 나라 승객들이 서로 앞다투어 내리는데 동승했던 洋人 하나가 발길로 東洋人을 차고 앞서 내리는 것을 보고 어안이 빙빙해진다.¹⁸⁾ 김성은 무더운 상해의 여름, 손님을 싣고 달리

16) “지나”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의 한 지류밖에 아니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일본유학을 한 적 있는 중국 유학생들은 “지나” 또는 “지나인”이라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했는데 꼭말약은 「行路難」이라는 글에서 일본인들이 중국인을 “지나인”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 커다란 분노를 표시한바 있다. : “日本人喲! 日本人喲! 你忘恩負義的日本人喲! 我們中國究竟何負于你們, 你們要這樣把我們輕視? 你們單是在說這‘支那人’三個字的時候便已經表示盡了你們極端的惡意. 你們說‘支’字的時候故意要把鼻頭皺起來, 你們說‘那’字的時候要把鼻音拉作一個長頓.”(趙園, 『艱難的選擇』, 上海文藝出版社, 1986年, 441면에서 재인용).

17) 金光洲, 「黃浦江畔에 서서」, 『新東亞』, 1934. 9, 143~144면.

18) 滬上夢人, 「上海서, 第一信」, 『青春』 第三號, 103면.

는 인력거꾼들이 日射病에 걸려 폭폭 길바닥에 거꾸러지는데 그 인력거를 타고 가던 白人種은 별떡 내려서서 혀를 가로 물고 죽은 불쌍한 사체를 발길로 한번 툭 차고 제 갈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한다.

이어서 김성은 황포탄 萬國公園이라 하지만 “中國人과 개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패쪽이 붙어있는 어처구니없는 식민지 현실을 고발하고 7월 7일과 7월 14일 북미합중국독립기념일과 불란서혁명기념일을 맞아 술 마시고 춤을 추면서 질탕하게 놀아대는 서양인들을 비난한다. 프랑스공원 역시 평소에는 중국복장과 일본복장을 입고는 들어갈 수 없다. 경마장이나 수영장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上海跑馬場은 上海居留外國人의 녀름 오락장이다. 그 널븐 마당을 제각기 떼어맡아가지고 저녁마다 미국인은베이스볼, 英國人은크리켓이나, 꿀푸, 日本人, 印度人等은 테니스를놀고 또는 때때로 英國人의 競馬大會가열닌다. 蘇州路와新公園압해水泳池를 만드려노했다. 그러나이췌흔설비들은모다白人들이白人들自身을위한거시오, 그땅의主人인中國人을爲始하야그맛東洋사람들은그들의잘노는고유쾌하게지나는거슬구경하는것으로一種變態的 쾌락을엇고있는것이 사실일다.¹⁹⁾

뿐만 아니라 서양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식민지배는 다분히 오리엔탈리즘적인 발상까지 보이고 있어 더욱 흥미롭다.

上海에 유명한 黃浦灘 公園이오, 門에서 키 크고 얼굴검고 수영을 귀밀까지 꼬어부치고 다홍수건으로 뼈죽하게 머리를 동여 맨이는 물을 것도 없는 印度 巡査라 영·미·兩租界는 每事를 聯合하야 印度 巡査—차라리 巡査補로 境內를 護衛하게하고 兩端에있는 法租界만 安南人 巡査를 쓴다하니 말하자면 英글로색손族은 英글로 색손族끼리 聯合하야 그네의 公同한 榮光인 印度 征

19) 金星, 「上海의 여름」, 『開闢』, 1924.4, 43~46면.

服을 表象하기 위하여 印度人으로 街頭와 門戶를 護衛케함시오. 法人은 라틴 族으로 古代로마의 榮譽가 代表되고 現代 라틴의 威光을表하기 爲하여 自己네가 管轄하는 安南人으로 巡査를 삼음이로소이다. 더욱 注意할 것은 印度巡査의 短髮削髮을 禁하여 印度古來의 風習을 머리에 두게 하며 安南人도 削髮을禁하고 머리에 이러케 생긴 되갓을 씌움과 支那人도 馬車같은데 御者로 쓰랴면 支那 古來의 이상아릇한 服色을 식임이니 그것은 마치 洋人들이 自己네는 政丞判書의 威風으로 奴僕에게 怪常한 차림을 시키어 우슴거리를 삼음과 같으니 이다.²⁰⁾

이처럼 상해의 “식민성”은 식민지국민인 인도·안남·중국인의 괴상망측한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그렇다면 조선인과 중국인의 대응은 어떠한가? 조선인들은 식민지인 조국에서 상해로 피난을 오거나 유학을 오지만 궁핍에 시달려야 한다. 하지만 망국의 한을 달래며 切齒腐心하는 모습을 보인다. 8월 그믐날 밤이면 상해 法租界의 한 구석에서 수백 명의 조선인들이 모여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비분강개한 연설을 하고 나서 간절한 목도를 드린다.²¹⁾ 8월 29일은 그네들이 나라를 잃은 날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중국인들은 우에서 본 바와 같이 더럽고 둔감하고 버러지처럼 짓밟히는 존재요, 한낱 변태적인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국민성은 변란을 당할 때마다 “외국인의 보호를 받으려고 와글거리고 아우성을 치며” 白渡橋를 건너가는 모습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했다.²²⁾

이러한 단순한 비교와 중국인과 중국문화에 대한 비하는 중국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조선 문화인들의 몰이해를 드러낼 뿐이다. 그들은 중국인의 국민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고 그 당시 상해에 살고 있던 중국의 최고 지성들과의 대화와 교류가 없었기에 중국의 지식계에서 일고

20) 滬上居人, 「上海印象記」, 『新人文學』, 1935.4, 118~119면.

21) 金星, 「上海의 여름」, 『開闢』, 1923.8, 46면.

22) 皮千得, 「上海大戰回想記」, 『新東亞』, 1932.2, 105면.

있는 거대한 반제반봉건의 사상운동과 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3. 1920~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상해

상해를 배경으로 한 소설은 1920년대로부터 1930년대까지 조선 국내 신문과 잡지에 간단없이 발표되었다. 도합 20편의 작품 중에 장편이 6편 단편이 14편이다.

손지봉은 상해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내용상 네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다. 첫째 상해를 자유연애의 장소로 인식한 작품으로 「남자」, 「호상의 눈물」, 『첫사랑값』, 『동방의 애인』이 있고 둘째로 도시의 궁핍한 인간상을 그린 작품으로 「인력거꾼」, 「살인」이 있으며, 도시성과 식민성을 함께 의식한 작품으로 「남경로의 창공」, 「북평서 온 영감」, 「포도의 우울」이 있고, 넷째로 혁명에의 의지를 그린 작품으로 『동방의 애인』, 「황혼」, 『흑풍』이 있다.²³⁾

여기서는 주로 주요섭, 김광주, 최독견과 심훈의 작품을 통해 조선 문학자들의 중국관과 근대에 대한 인식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주요섭의 경우 : 상해 하층민의 비참한 삶과 그 빈곤에 대한 고발

朱耀燮(1902~1970)은 평양 출신인데 그 가문이 꽤나 잘 살았던가 보다. 주요한, 주요섭 두 형제가 선후로 상해에 와서 유학을 했으니 말이다. 주요섭은 형 朱耀翰(1900~1979)의 뒤를 따라 1920년 중국에 오는데 소

23) 손지봉의 상기 논문, 42면.

주 안성중학교 3학년에 편입되었다가 상해 호강대학교 중학부에 옮겨 앉는다. 그는 1927년 호강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상해에 머물러 있었는데 1950년 5.30운동에도 참가한다. 이는 그의 수필 「一九二五年 五·卅」에서 볼 수 있다. 마닐라에서 열린 제7회 극동올림픽대회에 참가하고 20일만 상해에 돌아온 때가 5월 30일 저녁인데 그는 즉각 학생들과 함께 5.30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중국말을 잘 할 줄 모르는 고로 연설은 한번도 한 일이 없었으나 遊說隊를 따라 다니다가 그만 죽을 애를 써서 겨우 탄 올림픽메달을 어느 발고랑에 떨어뜨린 일을 애석해 하고 있다.²⁴⁾ 여기서 청소년기 주요섭의 惡童다운 모습과 민족의식에 눈뜨게 된 과정을 볼 수 있다.

아무튼 20대 좌우의 젊은 나이에 상해에서 7, 8년 간 지낸 주요섭의 눈에 비친 상해는 어떠할까? 그의 단편 「인력거꾼」(1925.4)은 인력거꾼의 불우한 운명을 다루고 있다면 「살인」(1925.6)은 윤락가에 몸을 던진 한 기생의 삶을 다루고 있다.

먼저 「인력거꾼」을 보기로 하자. 그 당시 상해에는 무려 2만 명의 인력거꾼이 있었다고 하는데 김성은 그의 기행 「상해의 여름」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상해의 여름은 몹시 덥다. 내복만 걸치고 가만히 방안에 앉았어도 땀이 쫄쫄 흘러내리는 때가 많다. 밤에 자려고 자리에 누우면 가슴이 툅툅 막히고 등골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한다. 오후 거리에 나가 걸으면 콜타르 칠을 한 행길이 물큰물큰하고 반사하는 태양열이 훗훗 얼굴에 치받친다. 어떤 때는 손님을 태워 끌고 비지땀을 흘리며 달리는 인력거부들이 길 가운데서 일사병에 걸려 푹푹 거꾸러지거나 죽은 노동자가 많다. 그러면 그 인력거를 타고 있는 백인종은 뺨뺨 내려서 혀를 가로 물고 죽은 불쌍한 사체를 발길로 한번 툅 차고는 제 갈 길을 간다.”²⁵⁾

24) 朱耀燮, 『一九二五年 五·卅』, 1934.5, 248면.

25) 金星, 「上海의 여름」, 『開闢』, 1923.8 43면.

인력거꾼을 다룬 중국 근대작가의 작품으로는 魯迅(1981~1936)의 「一件小事」(1920)과 郁達夫(1996~1945)의 「薄奠」(1924)을 들 수 있다. 노신의 경우는 교육을 받지 못한 최하층인간들 속에서 오히려 성실성과 인간성을 발견하고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육달부의 경우에는 약한 자들에게 뜨거운 동정을 쏟고 있다. 「박전」의 주인공 역시 인력거꾼인데 그의 소망은 자기의 인력거를 한 대 마련하는 것이다. 그는 소갈 데 말갈 데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인력거를 마련할 수 없었다. 그는 절망한 나머지 물에 빠져 죽고 만다. 지식인은 “나”는 그의 영전에 종이로 만든 인력거를 놓음으로써 절절한 애도의 뜻을 표시한다. 최하층인간의 윤리·도덕적 우위를 확인하고 그들의 불행에 뜨거운 동정을 보낸 중국 근대 작가들에 비해 볼 때 주요섭의 시각은 비교적 냉정하고 객관적이다.

주요의 단편 「인력거꾼」의 주인공은 아쟁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시골집에서 남의 집 심부름을 했고 상해에 와서는 공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쫓겨난 후에 인력거를 끌게 된다. 인력거를 끄는 일은 중로동인지라 9년 이상을 하면 지쳐 죽기 마련이다. 이런 점을 아쟁이도 모를 리 없건만 입에 풀칠이라도 하자면 죽든 살든 인력거를 끌어야 했다. 마침내 아쟁이는 일에 지쳐 죽게 되는데 이를 지켜보던 동료들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지껄인다. “무얼요. 저 죽을 때가 다 돼서 죽었군요. 팔년 동안이나 인력거를 끌었다니깐요. 남보다 한 일년 일찍 죽은 셈이지만 지난 번 공보조사에 보면 인력거를 끌기 시작한지 구 년만에 모두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최하층인간들에게 비극을 강요하는 중국사회와 비정한 인간심리를 역설적인 수법으로 고발한다.

하지만 주요섭은 노신이나 육달부의 경우처럼 최하층인간의 윤리·도덕적인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미개하고 비위생적인 생태를

강조하여 묘사한다.

아찌와 쫄투(돼지)라는 별명을 가진 동거지 똥똥보는 어두컴컴한 부엌 속으로 들어가 둥그런 탁자를 가운데 놓고 뒷받침 없는 걸상에 뺑 둘러앉은 때물은 옷 입은 친구들 틈에 끼어 앉아서 떡 두 개씩과 꺼룩한 미음을 한 사발씩 먹고는 찢렁찢렁한 전대 속에서 동전을 여섯 푼씩 꺼내서 탁자 위에 메치고 코를 헹헹 아무데나 풀어 부치면서 거리로 나왔다.²⁶⁾

이 외에도 아찌의 “돼지우리 같은 자리”에 대한 묘사, 집집마다 馬桶 [중국 강남 지역에서 나무, 사기 등으로 만든 변기—필자 주]을 부시는 상해의 구린내 진동하는 아침거리에 대한 묘사, “파리친구들이 웅웅거리며 이 떡 저 떡으로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대로 실컷 그 고소하고 짹짹한 맛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해의 아침 난전에 대한 묘사 등은 작품의 리얼리티를 기하는 데 一助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작가의 문화적인 우위를 낚시 암시하고 있으며 조선 국내 독자들의 이국적인 정취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단편 「살인」은 한 기생의 삶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우뽀는 가난에 찌든 부모가 보리 서 말을 받고 도로건축공사 십장인 서양놈에게 팔아넘김으로써 비극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그녀가 무지막지한 노동자에게 밤새껏 시달리고 다시 돈 7원에 팔려 상해로 건너가 창녀로 된다. 그녀는 한 청년을 먼발치에서 보고 사모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처지임을 알고 절망에 빠지며 또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의 고혈을 빨아먹는 기생집 주인마누라를 미워하게 되며 나중에 살해하게 된다. 이 작품은 살기 위해 몸을 팔고 모든 인간적인 굴욕을 참아야 하는 매춘부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점, 다음으로 주인공

26)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편,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 제1권, 민족출판사, 1995년, 343면.

으로 하여금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함으로써 부당한 착취와 피해로 인한 반항의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으로 하여 그 당시 카프계열에 속했던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김기진은 이 작품을 최서해의 단편 「기아와 살육」과 한 자리에 올려놓고 평가하면서 “기교나 유희의 세계에 안주한다든가 혹은 쓸데 없는 관능적 퇴폐한 기분 속에 방황, 침익하는 경향보다 백 배나 더 유익하고 사람다운고 진실”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²⁷⁾ 조동일도 그의 『한국문학통사』에서 주요점은 “최서해 이상으로 빈곤의 양상을 철저하게 들추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²⁸⁾ 바꾸어 말하면 주요점은 이국상해의 최하층 인간들의 불우한 운명과 빈곤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타자”를 통해 자기 모국의 빈곤문제와 식민성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형상을 통해 신격향파문학에 일조를 하고 이채를 더해 주고 있다.

2) 김광주의 경우 : 상해 조선인의 기구한 삶과 그 인간성의 승리

주요점이 상해를 무대로 중국인 서민들을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다면 金光洲(1910~1973)는 상해를 무대로 각양각색의 조선인형상을 창조하고 있다. 김광주는 경기도 수원 태생인데 1933년 중국의 길림을 거쳐 상해에 와서 남양대학 의학과에 입학해 재학시 동인지 『Bohemian(방랑자)』을 발간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한 유학생이었다. 김광주는 「그 時節의 上海의 봄」이라는 수필에서 상해의 유학시절을 다음과 같이 추억한다.

醫學校에學籍을 두고는 學校에 가는날은 一週日에 하로나 이틀- 자연 醫學第一主義로 아우까지 醫師를 맨들라는 兄님께서 工夫에 忠實치않는것을 아시고 넉넉치못하던 學費조차 一切보내지를 아느시니 글자그대로 ‘룸펜’이 될수밖

27) 『개벽』, 1925.7

2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 지식산업사 제2판, 143~149면.

에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세방에서 쫓겨난 김광주는 이 집 저 집 친구네 집으로 찾아가서 궁상스럽게 자야 했고 낮이면 밥 한 술 얻어먹지 못한 채 문학서적을 한옆에 끼고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곤 했다. 그는 가끔 불란서 공원의 호숫가에 있는 벤취에 앉아 시집이나 소설을 일었고 간혹 금발을 한 외국부인과 만나기도 했다.

‘아유 코리안?’ 하던 그 또렷한 악센트-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래도 조선사람이라기는 싫어서 머리를 돌리고 시침을 떼고서 봄날 이층해빛에 펼쳐어리는 호수안의 금봉어를 시름없이 되려다보고 앉아 향수와 애상에 젖던 나의 모양!²⁹⁾

궁핍한 생활과 문학에 대한 사랑, 그리고 조선인의 콤플렉스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김광주는 1935년에 남양대학을 중퇴하고 1945년까지 민족독립의 길을 찾아 화남, 화중 등지를 전전하다가 광복을 맞아 서울로 돌아간다.

그는 1930년대 중반 상해를 배경으로 조선인의 삶을 다룬 4편의 단편을 내놓는다. 그것들로는 당시 조선인 지식인들의 경제적 궁핍과 심리적 불안을 다룬 단편 「포도의 우울」(1934)과 「남경로의 창공」(1936), 상해에 굴러 들어온 조선인 나그네의 기구한 운명과 애환을 넉넉한 익살과 해학으로 다룬 「북평서 온 ‘영감」, 조선인 창녀 이쁜이의 비극적인 운명을 다룬 단편 「野鷄」 등이다.

김광주의 추억으로 미루어 볼 때 「포도의 우울」은 다분히 자서전적인 소설인데 朴英熙는 「上半期短篇小說總評」이라는 글에서 이 작품을 두고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29) 『신동아』, 1934. 4, 140쪽.

金光洲 氏의 「鋪道の 憂鬱」은 上海異域에 있는 朝鮮의 젊은 志士의 生活 苦를 그리려 한 것이다. 모든 同志들은 이作品의 主人公인 “철”이를 弱한 “인 테리”라고 嘲笑하고 辱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 “철”이를 떠나갔다. 異域에 외 로히 남은 “철”이는 “안해”의 解産을 目前에두고 돈을 求하려단이는 情景이다. 異國의 거리에 허매이는 이 苦難의 靑年의 心境이 實感을 주지못함과 이러한 獨特한 題材에 異國情趣도 表現되지 못함은 描寫를 急히 中斷한데 그原因이 있을것이다. 作家들의 이러한 傾向은 붓이 老練되지못한 데도 原因이 있겠으나 모처럼 재미있는 題材를 가지고 아모 制限없이 自由스럽게 悠長한 氣分으로 表現치못함으로 作品은 늘 硬生하게 되는것인줄노 생각된다.”³⁰⁾

박영희가 지적한대로 「포도의 우울」은 상해에 살고 있는 조선인 젊은 지식인의 생활고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애희 할머니의 형상이다. 주인공의 갈등과 아픔을 덜어 주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웃간에서 죽은들 누가 알겠소. 해산때가 가까운 줄은아렸지만 이런줄이 야 누가아렸소. 온붓그러운게 다 뭐란말이요. 어제저녁에라도 기별만했스면 내와서 안보아주겠소. 그래도 사람은 살게마련이지. 저녁을먹고 났더니 공연히 나오고 싶어서 와봤지. 하여간 후산까지 순순히 되었고 또첫아달을 나었으니 한턱을 단단히 내야지.”³¹⁾

아내의 해산을 도와준 애희 할머니의 말이다. 이러한 애희 할머니의 설정과 그에 의한 갈등의 해소에는 비인간적인 도시문명에 대한 거부감과 사라져버린 따뜻한 온정에 대한 향수가 짙게 배어있다. 「남경로의 창공」 역시 도시문명을 부정하고 인간성을 추구한다. 아편 밀수업을 하는 아버지의 돈으로 학업을 마친 주인공 명수는 아버지에 대한 수치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러한 집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낀다. 이 작품에 등

30) 『신동아』, 1934.8, 193면.

31) 김광주, 「포도의 우울」, 『신동아』, 1934년 2월호, 181면.

장하는 아편 밀수업자인 아버지, 남편의 외도에 상심한 나머지 마지막으로 허송세월을 하는 어머니, 그러한 가정환경에 수궁하는 여동생, 술과 춤으로 소일하는 “소니아”와 비열한 시정배가 되어버린 A선생 등은 도시문명의 음영을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작품은 이들과 명수의 갈등을 도시문화의 병폐와 인간의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작가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도시문명의 건너편에는 사라진 조선인의 전통사회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김광수의 소설은 도시와 농촌, 근대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의 갈등을 통해 농촌과 전통적 가치에 대한 깊은 향수를 보여 주고 있는데 그의 단편 「북평서 온 영감」과 「예지」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잘 보여준다.

먼저 「북평서 온 영감」을 보자. 이 작품은 화자가 관찰자의 시점으로 북평서 온 영감의 행적을 기술하고 있다. “영감”은 순박한 농민의 전형이다. 성품이 어수룩한 그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 새벽에 일어나 외양간을 쓸어내고 쇠죽을 끓이며 낮에는 소를 몰고 나가 꼴을 베면서 머슴살이를 한다. 그래도 그는 자기야말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눈 먼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심청이를 대견하게 여기고 늘 『심청전』을 품에 넣고 다녔다. 그런데 이러한 시골사람에게서 “사람다운 삶”을 찾아간 곳이 바로 서울이다. 시골생활에 싫증을 느낀 아내가 서울로 도망을 갔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장마가 져서 딸을 잃게 된 그는 웬 나쁜 놈의 꼬임에 들어 만주로 가게 된다. 하지만 만주는 전란이 그칠 새 없었고 강냉이밥도 먹기 어려운 곳이었다. 그는 길림, 간도 등지를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의 주선으로 北平에 가게 된다. 그러나 그가 찾아간 곳은 아편과 갈보 장사를 하는 곳이다. 유통성이 없고 고지식한 그는 공연히 미움을 사고 골탕만 먹고 쫓겨나게 된다. 30대의 나이에 벌써 영감소리를 듣게 된 것은 영감 같은 느릿한 행동거지와 말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과거가 말해주듯이 하도

많은 고생을 해서 곱슬곱슬해 보이기 때문이었다.

상해에 온 “영감”은 예배당에 갔다가 우연히 “메리”라는 여자를 보고 그만 환장해 버린다. “메리”는 B씨라는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맏딸이요, 밭상이어도 국제도시 상해에서 洋風을 마실 대로 마시고 자란 귀한 아가씨다. 아무튼 그녀의 얼굴이 자기를 배신하고 서울로 도망간 아내의 얼굴과 너무나 흡사했으므로 “영감”은 그만 “메리”에게 반해 밤에는 잠꼬대를 하고 낮에는 돈을 벌어 “메리”에게 장가를 들려고 분주하게 설친다.

그런데 방정맞게도 “메리”는 시집을 가게 되고 “영감”은 엉뚱한 짓을 저지른다. B씨네 집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신부가 잠자리에 막 들려고 하는 순간, 식도를 번뜩이며 신방에 침입했다가 무엇에 놀랐는지 칼을 집어던진 채 달아난 어리석은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영감”이었던 것이다. 결국 “영감”은 경찰에 잡혀 조선으로 압송되고 만다. 이 소문이 퍼지자 상해 조선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영감”의 어리석음을 두고 “싱거운 놈”, “어림없는 놈”, “미친놈” 하고 욕하고 비웃는다. 작품은 이렇게 끝난다.

그러나 나는 때때로 바다 건너 저편 쇠창살아래까지 흘러간 그를 “영감! 영감” 하고 친히 불러보고 싶은 충동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귀를 찌르는 그의 느릿느릿한 말소리
 “그런 패썹한 년이 있더라 말지요?”³²⁾

보다시피 “북평서 온 영감”은 어수룩하고 고지식하며 융통성이 없는가 하면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이다. “사람이 팔다리가 부러졌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두 눈을 꿈벅꿈벅하고 앉아서 놀고 먹어서 쓰나?” 이것이 그의 인생철학의 전부이다. 또한 그의 소망이라면 “밋든 곱든 마음 착한 아내를 데리고 다만 한 칸 방에서라도 자식을 안고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하

32)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편,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 민족출판사, 758-759면.

지만 도시는 그의 아내를 꼬여 갖고 중국어도 모르고 아무 기술도 없는 그에게 상해라는 도시는 일자리를 주지 않았다. 이처럼 이 소설은 도시라는 공간과 근대라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감”의 고뇌와 그의 엉뚱한 행각을 통해 근대적인 도시문명이라는 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과 생리와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가를 고발하고 있으며 강한 근대비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즉 이 “작품은 도시라는 공간에서 용납될 수 없는 한 인간이 결국은 감옥이라는 공간으로 격리되는 양상을 순조롭게 서술하여 순박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도시라는 공간의 장벽을 상해라는 무대를 통해 보여 주었다.”³³⁾

단편 「野鷄」에 와서 서민의 생명력과 도덕적 승리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작품은 상해의 大世界를 배경으로 한 조선인 기생의 불우한 운명을 다룬 서한체소설이다.

따스가란 일세를 풍미했던 상해의 유명한 유흥업소의 이름이요, “野鷄”란 그 뒷골목에 늘어서서 웃음을 팔고 있는 창녀들을 이름함이다.³⁴⁾ 따스가는 중국의 유명한 작가 모순의 장편 『밤중』이나 신감각파에 속하는 劉納毆, 施蟄存, 穆時英의 소설에도 자주 나오지만 지금도 회색 종탑 모양의 따스가 건물은 그 주변의 화려한 고층빌딩 사이에 웅크리고 서있는 늙은 창녀의 모습처럼 서있다. 80여 년 전 이 따스가 뒷골목은 아편 냄새, 술 냄새가 진동하고 마작을 뒤섞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다이커[大客], 얼커[二客] 하며 손님들의 팔목을 잡고 늘어지는 창녀들로 넘쳤다고 한다. “다이커”란 아편을 먹으러 오는 손님이요 “얼커”란 여자 맛을 보려고 오는 손님이다.³⁵⁾

바로 이 상해거리의 창녀들 속에 한 가냘픈 조선인 창녀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이쁜이란다. 어느 날 이쁜이는 서울에 살고 있는 송아지친구 명숙이

33) 손지봉의 상기 논문, 65-66면.

34) 村松梢風, 「大世界·新世界」(陳子善 編, 『夜上海』, 經濟日報出版社, 2003年, 189면.

35) 최삼룡, 「상해의 암흑가와 강패」(『연변문학』, 2003년 제9기)

로부터 “상해로 신혼여행을 떠날 작정이니 부두까지 마중을 나올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약 삼 주일 예정이니 두루두루 구경을 잘 하도록 안내를 해달라”는 편지를 받는다. 하지만 이쁜이는 그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던진다. 왜냐하면 이쁜이가 상해의 어느 여자대학 영문과에 다니면서 문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멸칭한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박쥐와 같이 낮에는 잠자고 밤이 깊어 온 세상 사람들이 단잠을 잘 때면 회박을 뒤집어 쓴 것 같이 진한 분 때문에 윤곽조차 비틀어진 것 같은 기괴망측한 얼굴에 음탕한 웃음을 짓고 상해의 한 복판에 저 ‘따스가’ 뒷골목에서 출발하여 오고가는 행인의 팔목을 지근거리 하룻밤의 고깃덩이 임자를 낚시질하는 신세다. 온 세상 사람들이 천하다 더럽다 침 뱉고 손가락질하는 ‘애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쁜이는 계속 편지를 써내려 간다.

그러나 나는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세상의 누구에게도 내 사정을 호소하거나 애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나는 반드시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돈 오백 원에 오 년 동안 어떤 놈이든지 상대해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으니 아직도 삼 년, 이 긴 세월을 이렇게 지내다가는 나는 뼈만 남고 말 것이다. 그 안에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해서 내 몸을 빼내고야 말겠다. 소설도 시도 미지근한 세상의 동정도 나는 싫다.

돈, 돈만이 나를 구할 수가 있다. 나는 그것을 똑똑히 알았다. 어차피 이리된 바에야 내 몸은 어찌되든 좋다. 그 대신 어느 놈이든 든든한 놈이 걸리면 나는 덮어놓고 바가지를 씌워 내 몸값을 해주고 시원스럽게 이 곳을 떠나겠다. 그야말로 굴레 벗은 말 같이, 들을 훤히 싸지르는 닭의 떼 같이 돈으로 계집의 몸을 저며 가는 사내놈들, 나도 돈으로 사람을 살 것이고 남편을 살 것이다.

흥! 누가 나더러 남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냐? 정말 귀여운 아들 딸을 두 팔에 하나씩 안고 하루라도, 다만 한시라도 에미 노릇을 하다 죽고 싶다...36)

36) 조남철 엮음, 『중국내 조선인 소설선집』, 78-79면.

이국의 땅, 상해의 밀바닥에서 뒹굴면서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간의 자존과 여자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는 이쁜이, 그녀는 무정한 세상에 도전장을 낸 것이다. 그의 저항은 개인적인 저항이요, 단순한 복수지만 그의 소망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강한 반발과 생명력은 퇴폐와 타락을 극복할 수 있는 민중의 힘을 대변한다. 한마디로 김광주는 북평서 온 영감, 애지 등의 형상을 통해 근대문명의 폐단을 비판하고 그 극복의 힘을 전근대적인 윤리와 도덕, 민초의 야생적인 생명력에서 찾고 있다.

3) 최독견, 심훈의 경우 : 지식인의 고뇌와 식민지현실의 극복

상해에 들어온 조선인 망명객, 혁명가, 지식인, 유학생들은 경제적 궁핍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여러 조선인 단체들은 내분과 분쟁을 겪으면서도 근대의 식민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앞에서 본 김광주의 소설들은 생활난에 허덕이는 지식인의 불안과 고뇌 「포도의 우울」, 이른바 지사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조선인사회의 변질과 타락 「남경로의 창공」, 그 외에도 “공부합네 하고 학비를 부쳐다 가는 중국색시들에게 빠져서 허덕허덕하는 젊은 서방님”, 밥이나 지어먹고 나면 별로 할 일이 없이 조선의 맛있는 음식타령이나 하고 남의 집의 험담을 일삼는 조선인 마나님들과 추태 등 상해 조선인 사회의 세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북평서 온 영감」 이러한 고리타분한 일상을 깨고 혁명에의 의지를 불태운 혁명가들이 있었으니 그네들을 형상화한 소설이 바로 崔獨鵠 본명 象德(1901~1970)의 「황혼」과 沈熏 본명 大燮(1901~1936)의 『동방의 애인』이다.

최독견의 「황혼」은 1927년 8월 호 『新民』에 발표된 단편소설인데 마치

막 14행이 삭제되어 있다. 이 작품에는 3.1운동에 참가했다가 상해로 망명을 온 독립운동가 박선생과 그의 아내가 등장한다. 박선생은 4년 동안의 고퍀과 귀국하라는 아내의 간절한 권유도 마다하고 “거적에 들려갈 시체”가 될지언정 조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박선생의 아내는 교사로서 일본의 식민지문화정책에 동화된 여성이다. 그는 나라를 위하는 일보다 처자를 부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상해에 와 있는 남편을 “불평이라는 병”과 “방랑이라는 증세”를 가진 불평객으로 매도한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박선생은 아내와 어린 아들과 상봉하는데 마지막 14행이 삭제되어 박선생이 아내의 권유에 못이겨 귀국했는지, 아니면 아내의 권유를 뿌리치고 그냥 상해에 남아 독립투쟁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이 작품은 박선생의 심리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이 한 단락을 통해 박선생이 구경 어떠한 길을 선택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의머리속에는 盛裝한 애인처럼 곱게 보이는조선이 떠돌고눈오고 바람치는 시베리아가 떠도랏다. 입을다물고 눈을감은 그의압혜는 모란봉이보이고 간도골작이가 보이고 구슬갓치맑은 한강이보이고 막걸니갓치흐린 황포강이보이고 뜻뜻한 자기집 아랫목이 보이고 찬달이 새여드는 쓰러진객창을 보았다. 그는마지막으로 자기의 안해와 아들이 뒤따르는 곱다란 喪輿가 보이고 광야와 거적을 질머진 동지가차자가는자기의 시체를보았다.³⁷⁾

포석 조명희의 유명한 단편 「낙동강」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아무튼 이 작품은 경제적 궁핍과 심리적 불안, 아내의 권유를 떨쳐버리고 이역의 도시 상해에서 의연히 혁명투쟁에 투신하고 있는 한 혁명가의 비장한 각오와 의지를 보여준 작품인 것 같다.

37) 『沈熏文學全集』, 探求堂, 1966년, 162면.

심훈의 『동방의 애인』 역시 일제의 검열에 걸려 미완으로 끝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외면상 연애소설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은 사회주의 혁명을 다룬 정치소설의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 작가는 머리말에서 이 작품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암시한다.

남녀간에 맺어지는 연애의 결과는 조그만 보금자리를 얻어놓는데 지나지 못하고 아버지와 자녀간의 사랑은 핏줄을 이어 나아가는 한 날 情實관계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더 크고 깊고 변함이 없는 사랑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민족과 같은 계급에 처한 남녀노소가 사랑에 겨워 껴안고 몸부림칠만한 새로운 공통된 애인을 발견치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³⁸⁾

그렇다면 “공통의 애인”이란 무엇인가? 조선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상해에 망명한 동렬과 박진이 상해 독립운동가들의 생활고, 당파적 분열상과 부패상을 보고 한탄하던 중 某씨라는 인물을 통해 “새로운 길” 즉 사회주의 혁명의 길에 나서는 양상을 띠고 있다.

X씨를 중심으로 동렬이와 진이와 그리고 그들의 동지들은 지난날의 모든 관념과 ‘삼천리강토’니 ‘이천만 동포’니 하는 민족에 대한 전통적 애착심까지도 버리고 새로운 문제를 내걸었다.

그 문제 밑에서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듯 하여 몇 달을 두고 토론하였다.

‘왜 우리는 이다지 굶주리고 헐벗었느냐.’

하는 것이 그 문제의 큰 제목이었다. 전 세계의 무산대중이 짓밟히는 것이 모두 이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치 못하고는 결정적 답안이 풀려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이대로만 지내면 조선의 장래는 더욱 암담할 뿐이라 하였다.³⁹⁾

38) 동상서, 537면.

39) 동상서, 577면.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민족에 대한 전통적 애착심”에서 벗어난, 계급투쟁을 본질로 하는 사회주의 혁명에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혁명이야말로 그네들의 “공동의 애인”이었던 것이다. 동렬은 세정과 결혼하고 서로 뜻을 모아 “공동의 애인”을 추구하지만 박진은 영숙과 결혼을 하나 그녀의 허영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져서 살게 된다. 무산계급의 해방을 달성하기 위해 동렬이는 무산계급혁명의 본거지인 모스크바에 가서 직접 혁명을 배우고 박진은 중국의 좌익 군관학교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작품의 서두를 마무리 본다면 학습을 마친 동렬과 세정은 조선으로 돌아와 계속 혁명활동을 하고 박진은 국내와 해외를 전전하며 혁명운동을 하는 반면 영숙은 허영을 쫓아 일본으로 놀러 다닌다.

요컨대 이 작품은 조선인 연애소설이라는 외형적 형식을 빌어 망명객과 혁명가들이 상해에서 겪은 생활고를 리얼하게 보여줌과 아울러 그들이 당파를 무어 내분을 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통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주의 계급혁명의 필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4. 결론

1919년 3.1운동을 전후로 하여 근대 조선의 많은 문학자들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근대도시 상해에 와 체험을 쌓았고 상해지역의 중국인을 비롯한 여러 인종과 그들의 각양각색의 생활을 다룬 실기류와 시, 소설 작품을 창작해 국내에 발표했다. 하지만 그들의 체험은 언어적 장애, 중국의 최고 지성들과의 교류와 대화의 불가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외관적인 관찰에 치우치고 있으며 주로 상해 하층민과 상해에 체류한 조선인들의 생활에 머물고 있다.

주로 실기류와 소설을 살펴보면, 조선의 근대 문학자들은 조선 국내에서 일제의 폭력과 문화적인 헤게모니(Hegemony)에 의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 받은 상황에서 이국 상해에서의 체험을 통해 조국의 식민지현실을 성찰, 반성, 비판,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이역 상해—즉 타자(The other)를 자기 조국의 현실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삼았으며 그 과정에서 유토피아적 형상과 이데올로기적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그들 조국의 낙후된 현실을 부정하고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거나 조국의 식민지상황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문학자들은 상해의 식민성을 보지 못하고 그 외관적인 모습에 현혹된 나머지 상해를 식민지 조선이 따라 배워야 할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심리 속에 깊이 잠재된 이중적 신분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문화적 우위”에 서서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으로 중국 국민의 개회되지 못한 모습을 극대화해 그림으로써 조선 국내 독자들의 호기심에 만족을 주고 부지불식간에 일본의 헤게모니 담론에 동조하고 있다. 또한 일부 근대문학자들은 근대성의 음영과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사회, 전근대적인 도덕과 윤리를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혁명을 제시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혁명을 제시하는 경우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경중환급을 따지지 않고 있으며 “단절 속의 반복”의 폐단, 즉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과 인위적인 단절 뒤에 빛어질 수 있는 새로운 “제국”의 출현에 대해서는 경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배경으로 한 상술한 작품들은 해당 시기 한국 본토의 문학으로는 완수할 수 없는 과제, 즉 조선의 근대화에 대한 성찰을 진행할 수 있었고 해당 시기의 문학에 이채를 더해줄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저서 및 논문

- 孫科志, 『上海韓人社會史』, 한국 도서출판 hanul, 2001년.
- 벌꽃, 「장강어구에서」, 『창조』, 1920.3.
- 金光洲, 「黃浦江畔에 서서」, 『新東亞』, 1934. 9.
- 김광주, 「포도의 우울」, 『신동아』, 1934년 2월호.
- 申彦俊, 「특파기자생활잡기」, 『신동아』, 1934년 5월호.
- 金星, 「上海의 여름」, 『開闢』, 1923.8.
- 金星, 「上海의 여름」, 『開闢』, 1924.4.
- 上海寓客, 「上海의 解剖」, 『開闢』, 1920.8.
- 滬上居人, 「上海夜話」, 『別乾坤』, 1930.7.
- 滬上居人, 「上海夜話」, 『朝鮮之光』, 1930.10.
- 滬上居人, 「上海印象記」, 『新人文學』, 1935.4.
- 滬上夢人, 「上海서, 第一信」, 『青春』 第3號.
- 滬上夢人, 「上海서, 第二信」, 『青春』, 第4號.
- 朱耀燮, 『一九二五年 五·卅』, 1934.5.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 지식산업사 제2판.
- 최삼룡, 「상해의 암흑가와 강패」(『연변문학』, 2003년 제9기)
- 皮千得, 「上海大戰回想記」, 『新東亞』, 1932.2.
- 조남철 엮음, 『중국내 조선인 소설선집』.
- 『沈熏文學全集』, 探求當, 1966년.
- 芥川龍之介, 「上海遊記」, 『夜上海』, 經濟日報出版社, 2003年.
- 村松梢風, 「大世界·新世界」(陳子善 編, 『夜上海』, 經濟日報出版社, 2003年.
- 辛向陽 等 著, 『人文中國 - 中國南北情貌與人文精神』上冊, 中國社會出版社, 1996年.
- 孟華 主篇,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年 7月.

崔一, 『韓國現代文學中的中國形象研究』, 延邊大學博士學位請求論文,
2002年.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편,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 제1권, 민족출판사, 1995년.

논문투고일 : 2004. 6. 9 심사시작일 : 2004. 7. 7 심사완료일 : 2004. 7. 22

Abstract**Korean Literature and Shanghai in 1920-1930**

Kim, Ho-Ung

Shanghai became one of the biggest metropolitan in the world after 1842. Shanghai had been in a close relation to Koreans, as many Koreans settled down and set up the temporary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colonized period. At that time, many Korean writers in Shanghai were deeply impressed by the Modernism and political freedom prevailed in Shanghai and it effects the field of literature, while they posed a critical attitude toward ambivalence between modernity and conventional customs in Shanghai. In literary works, the writer Chu Yo-sôb described the poverty within the lower-positioned people, and Kim Kwang-Ju represented a Korean as a multi-player on the stage of Shanghai, scrutinizing the evil practices in modern society.

Key Word

Shanghai, Modernity, Colonized, Orientalizm, Writings